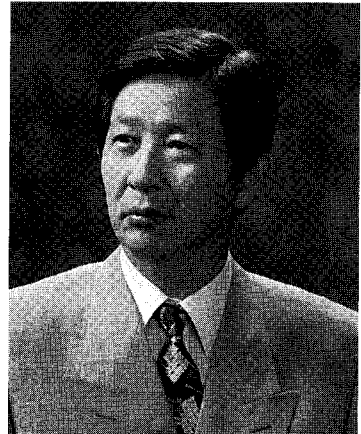


탐방

# 동성포장 기계



▶ 동성포장기계  
정완웅 회장

## 기술력 바탕으로 국제경쟁 세계 최초개발 기계 선보인다

### 회사 연혁

- 1970. 3. 공장자동화 설비인 각종 포장기계 전문생산 업체로 출발
- 1970. 3. 수동식 진공포장기 VP-600 국내최초 개발
- 1980. 4. Cellophane 자동포장기 수출 (SINGAPORE)
- 1982. 1. 자동진공포장기 수출(ARAB EMIRATES)
- 1982. 5. 자동성형포장기 수출(PAKISTAN)
- 1983. 7. 공장확장이전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0-68)
- 1983. 8. 자동포장기계 품질향상대상업체로 선정 (상공부)
- 1984. 3. 성실납세자 표창(재무부 장관)
- 1986. 8. 한국기계공업진흥회회장 표창
- 1987. 3. 모범상공인 표창(상공부 장관)
- 1988. 3. 용접롤 자동수축포장기 수출(PAKISTAN)
- 1989. 4. 대한상공회의소회장 표창
- 1990. 12. 우량중소기업체로 지정(중소기업은행)
- 1993. 9. 상공자원부 장관표창(CWP-3)
- 1993. 12. 고속자동포장기(CWP-3-120) 국내최초 개발

### 전문화를 통한 외길 24년

인류문명의 발달이 도구의 발달과 맥을 같이 했다는 것을 볼 때 기계의 발달이 인간생활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도 역학적인 간단한 원리를 이용하여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도구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가 다양화되고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기계적 요소만으로 구성하여 단순히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보다 정교하고 복합기능을 갖춘 종합적인 기계로서의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사용자의 욕구와 개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생산물이 소량, 다품종화 되고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에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산설비로 저렴한 가격에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계를 필요로 하게 됐다.

이와 같이 기계의 성능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동작의 정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계적 요소만으로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 최근 전기·전자와 결합한 메카트로닉스가 등장하게 됐다.

포장기계 분야에도 이런 경향은 급속도로 확산되어 이제는 기계와 전기, 전자의 결합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 나라에 포장기계가 출현한 이래 발전의 과정을 주도해 온 동성포장기계(회장 정완용)는 1970년 금성기계공업사로 설립되어 포장기계 전문 업체로 기반을 닦아오다 79년에 동성정밀기계로, 89년 동성포장기계로 상호를 변경, 오늘에 이르고 있다.

70년대 초 식품업체의 진공포장기 개발을 중심으로 각종 셀로판지 자동포장기 개발을 위시하여 80년대 들어 음료수용 병 및 캔제품의 자동포장기를 국산화하여 업계를 놀라게 했다.

특히 90년대에 와서는 국내 식품·음료수 및 의약품 생산업체의 공장 자동화추세가 대량생산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저속 포장기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생산업체에서는 고속 자동포장기를 비싼 가격으로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인지한 정 회장이 국내 실정에 적합한 다품종 다량 생산용 고속 자동포장기를 개발키

로 결심하고 소형 음료수 병(1백ml 용)용 분당 1백박스 고속 자동포장기를 랩어라운드 방식으로 국산화하여 업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는 국내에서 최초임과 동시에 미국의 APV더글라스와 일본의 미쓰비시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의 개가로그 기술이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 관련업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동성포장기계가 고도의 선진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속 포장기계를 개발할 수 있었음은 회사 창업시부터 정 회장과 더불어 포장기계 생산에만 전념해 온 직원들의 노력과 땀의 결실이라고 정 회장은 밝혔다.

동성포장기계는 자동 인너·아웃 박스 포장기, 자동 트레이 수축포장기, 자동수축 슬리브포장기, 자동 오버랩핑기, 자동 슈링크포장기, 자동 진공포장기 등 포장기 전문메이커로서 그 명성을 높이고 있다.

## 인재 육성정책으로 일관

포장기계가 아직까지 생소하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를

동성포장기계로 변경, 포장기계 메이커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고 있는 이 회사는 주력 생산품목 이외에도 각종 포장기의 자동화 및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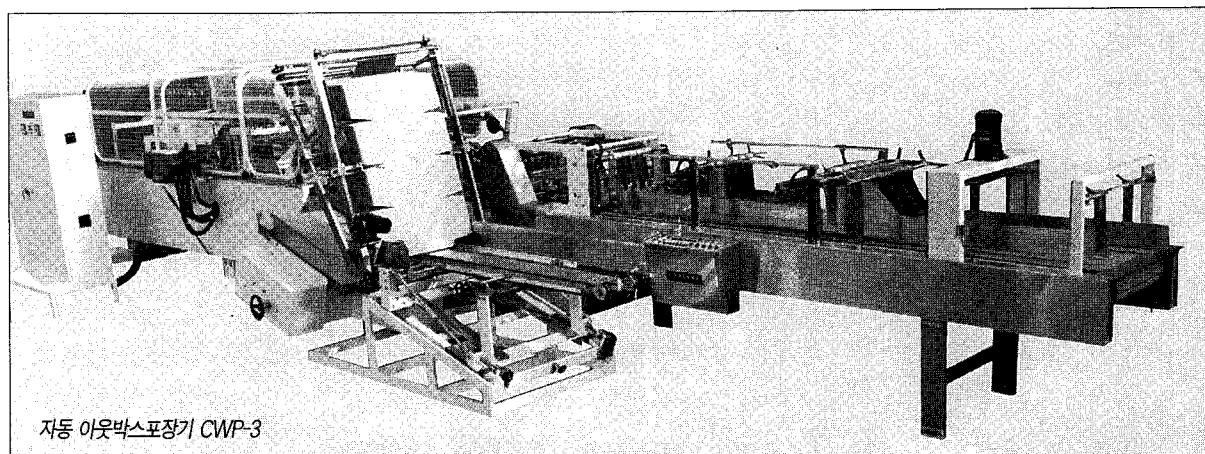
지하철 성수역 부근공장에서 24년간 포장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동성포장기계는 대지 6백평, 건평 9백평에서 40명의 종업원들이 올해 매출목표인 4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도 더위를 잊은 채 지냈다.

전형적인 중소기업인 동성포장기계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계 제작과 이를 통한 마케팅으로 회사운영이 건실해 업계에선 실속있는 회사로 통한다.

동성포장기계가 이렇게 주목을 받기까지는 창업이후 계속된 자동포장기 개발에 대한 의지로 그동안 꾸준히 축적해 온 기술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이를 말해주듯 이 회사가 납품한 기업은 SKC, 새한미디어, 금성사, 해태, 롯데칠성, 샘표식품, 제일제당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을 포함하여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더욱이 내수는 물론 싱가포르, 아



자동 아웃박스포장기 CWP-3

탐방

## 동성포장 기계

랍에미레이트, 파키스탄 등 동남아 및 중동지역에 수출을 하고 있어 명실공히 세계적인 포장기계 제작메이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동성포장기계가 기술력을 앞세워 국내외에서 경쟁할 수 있었던 내면에는 회사의 경영을 기술인력 중심으로 이끌어 분야별 전문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성포장기계의 종업원 가운데 10~24년의 장기근속자가 전체의 60%를 점유하고 있음을 보아도 기술우선주의를 내세운 경영이 현재의 시류에 부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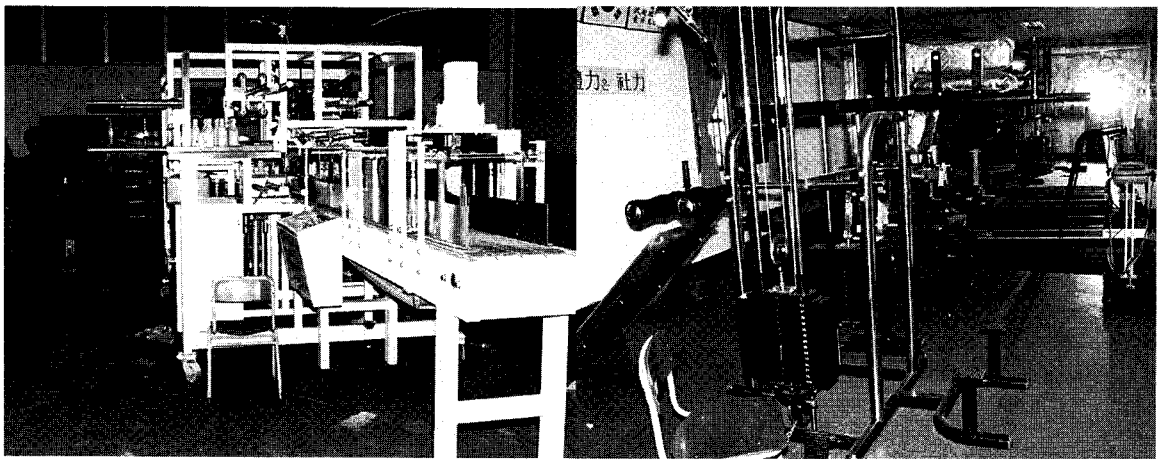
자동포장기계는 다른 기계분야와

전문인력으로 분류된다.

정 회장은 이와 같이 70년대 초 기업주로서 창업사의 어려움 속에서도 큰 불편없이 열심히 일해주었던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키 위해 사원용 주택을 확보하여 사원들에게 무료로 임대해 주고 있다.

또한 회사 규모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한 복지관의 체육시설과 운동기구, 오락실, 노래방 등을 꾸며놓고 회사를 위해 고생한 직원들에게 또 수년간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에게 기업주로서의 신의와 의리를 지키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한양대학교 기계과를 졸업한 정 회장은 70년대 우연한 동기에 자동화



공장 내부(왼쪽)와 사내 체육시설

마찬가지로 기계, 전기·전자가 결합된 메카트로닉스 산업으로 그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은 필수적이며, 동성포장기계가 예견한 것처럼 기술을 갖고 있는 장기 근속사원들이 자산중의 자산으로 꼽힌다.

특히 이들 종업원들은 대부분 수년에서 수십년간 장인정신으로 한 우물을 파고 있어 업계에선 내노라 하는

의 불모지인 포장기계 분야에 뛰어들어 세심한 부분까지 기술개발의 첨병 역할을 해왔다.

### 우연한 기획이 포장기계와 인연

학교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디딘 것은 프레스공장을 운영한 것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주변의 포장

기계 생산업체에서 영세하나마 원시적인 자동화 기계를 제작하는 것을 보면서 포장기계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했고 그런 가운데 포장기계 제작공장이 자금난으로 도산하자 이를 인수하면서 포장기계 제작과 인연을 맺었다.

정 회장은 공장안의 연탄난로 옆에서 가마니를 덮고 잠을 자며 기술개발의 의지를 불태우면서도 겨울아침 밤새 내린 하얀 눈을 보고 서러움의 눈물을 흘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회상과 함께 당시에는 기계쟁이는 누구나 겪었던 어려움으로 이제는 기술인이 인정받는 시대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초창기 정 회장은 외국의 성능 좋은 제품을 연구하려 해도 수입할 돈이 없어 식품업체에 사정하여 기계를 살펴보고 나뭇대로 메모와 설계를 통해 개발에 몰두한 결실로 70년대 초 식품용 진공포장기, 80년대 초 음료수용 병과 캔의 자동포장기, 90년대 들어 고속자동포장기인 랩어라운드 케이스를 개발하는 등 대표적 포장기계를 국산화해 기술력의 인정과 함께

정부 및 각종 단체에서 수많은 수상을 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초에는 분당 최고 1백20개의 박스를 포장할 수 있는 고속 랩어라운드 케이스를 개발, 미국, 일본에 이어 3번째로 개발하는 성과와 함께 지난달 포장기계로는 처음으로 신기술마크를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동성의 기업경영 기법은 인간적인 대우이며, 모두 함께 살아간다는 입장에서 이익의 일부를 종업원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를 통해 동성포장기계는 종업원들이 기술개발에 전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전문 기술자를 키워 전문 제품화하고 내가 만들어 낸 제품이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기회를 제공하여 일체감을 조성하여 종업원들이 머물 수 있도록 했다.

정 회장은 기계가 제작돼 출고될 때까지 손수 점검하여 납품결정을 하는 등 애착을 갖고 있으며, 판매제품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A/S체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성수동 공장 안에 수억원 규모의 A/S부품실 1백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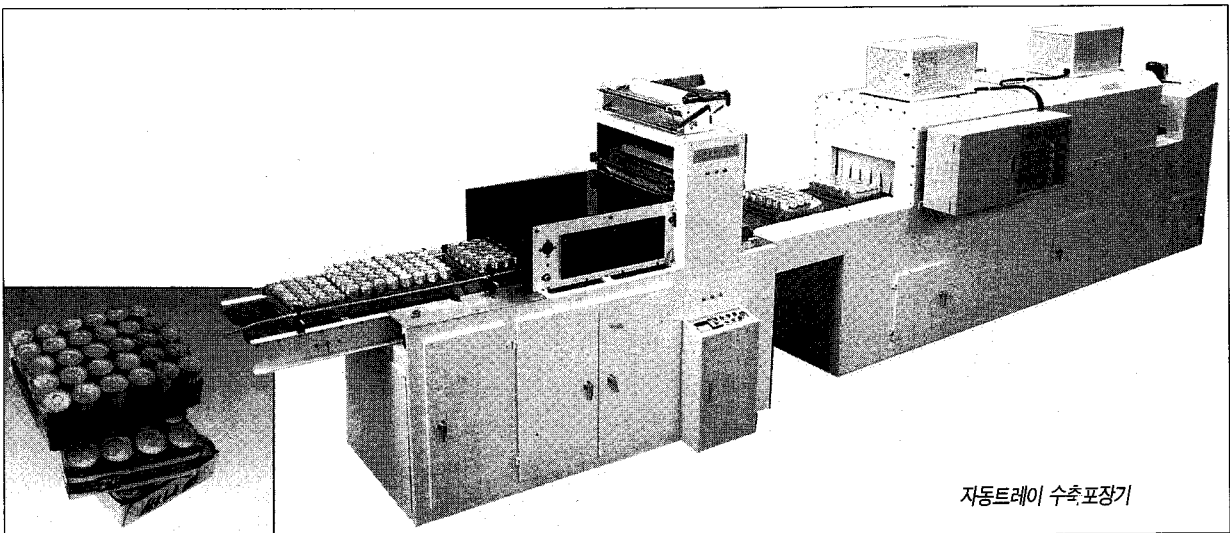
마련해 놓고 있다.

## 선익의 경쟁, 업계 질서유지 나서

정 회장이 바라는 일은 제작업자들이 가격우선주의를 내세운 과당 경쟁으로 기계의 질을 낮춰 국산기계의 불신풍조를 조장해 왔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로의 벽을 허물 것을 강조하고 수요자들도 사양의 80%도 사용하지 못하는 외산의 선호를 줄였으면 한다는 것이다.

“기계제작 후 현장에서 성능을 발휘하여 외산보다 좋다고 인정받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정 회장은 “최근 장인정신에 대한 신념이 쇠박해져 후세에는 산업의 근간인 기술사업을 누가하나 격정스럽다”며 요즘 젊은 세대들의 3D기피현상에 관해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반문을 제기했다.

동성은 내년 하반기 세계에서도 발표되지 않은 신개발품을 선보일 예정으로 3년여동안 개발에 몰두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히고 이 제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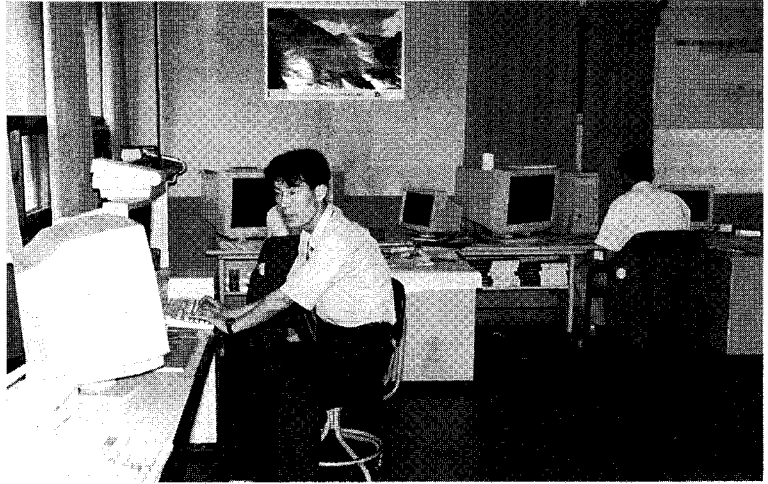


자동트레이 수축포장기

탐방

## 동성포장 기계

▶ 완벽한 CAD시설이  
갖추어진 설계실



완성되면 내구성 등 품질경쟁에서 앞서 나갈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정 회장은 또 대기업 우선정책인 산업이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으로 바뀌어 현재 80%나 되는 부품 및 소재가 국산화 될 수 있도록 정책변경, 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정부에서 펼쳐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인화단결·기술개발·책임완수를 사훈으로 내세운 동성포장기계는 국내 포장기계 시장점유율 60%를 확보하고 있으며, 수출도 꾸준하여 1980년 4월 싱가포르에 셀로판 자동포장기 수출을 시작으로 모리셔스, 아랍토후국, 파키스탄 등에 활발한 수출을 했고 최근에는 홍콩, 중국을 위시하여 미주지역과 구라과 지역 수출도 늘려가고 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중국의 포장기계 제조회사 사장 등 6명이 내방하여 중국의 포장기계 산업의 기술발전을 위해 동성과 기술제휴를 제안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데 성사 시 포장기계 제작기술 노하우의 중국 수출이 실현되는 개가를 올리게 된다.

우수한 제품과 철저한 품질관리에

의한 체계적 생산이 기업의 살길임을 강조하고 사담에서부터 설계, 제작, 납품, A/S에 이르기까지 NON STOP FLOW SYSTEM을 구축하고 있는 동성은 기술개발만이 기업의 살길임을 인지하고 지난 93년 매출액의 15%를 기술개발비로 투자하는 등 중소기업으로서는 보기드문 활발한 투자로 포장기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유망기업이다.

올들어 지난 5월에 동성포장기계 연구소를 설립하여 포장기계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는 이 회사는 인간 중심의 기술 우선주의 경영을 통해 미래를 다지고 있다.

세계 최고의 포장기계 전문메이커가 되기 위한 동성의 노력은 머지않아 결실을 맺을 것이 분명하다.

오선진 기자

## 고속자동포장기 신기술(NT)마크 획득 포장기계 부분 국내업체 최초로

**공**장자동화 설비인 각종 병포장기계를 전문으로 제조 판매해 온 동성포장기계가 포장기계 분야에선 국내 최초로 신기술(NT)마크를 획득했다.

동성포장기계가 국내에서 최초, 세계에서 3번째로 개발하여 국산화에 성공한 소형 음료수병의 고속자동포장기계(CPW-3-120)가 기계 성능의 우수성 등 신기술을 인정받아 공업진흥청, 국립공업기술원으로 부터 신기술마크를 획득하여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동성이 개발한 CPW-3-120은 병과 캔의 포장을 겸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호환성이 뛰어나 부품의 교환없이 이 회사가 개발한 분할장치에 의해 조절과 조정으로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특히 이번 신기술의 범위도 이를 인정하여 '제품 분할장치를 내장한 카톤 자동포장기계'에 NT마크를 부여했다.

신기술마크는 공업진흥청과 국립공업기술원이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 가운데 기술평가서 등을 제출받아 엄정한 심사후 자격요건에 적합한 것을 대상으로 기술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신기술마크를 부여받은 동성의 고속자동포장기는 상공자원부에서 지난해 1차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 품목으로 고시돼 공업발전기금을 지원받아 3억5천만원의 연구비를 투입, 지난해 말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이 기계는 안정성, 견고성, 정확성이 뛰어나고 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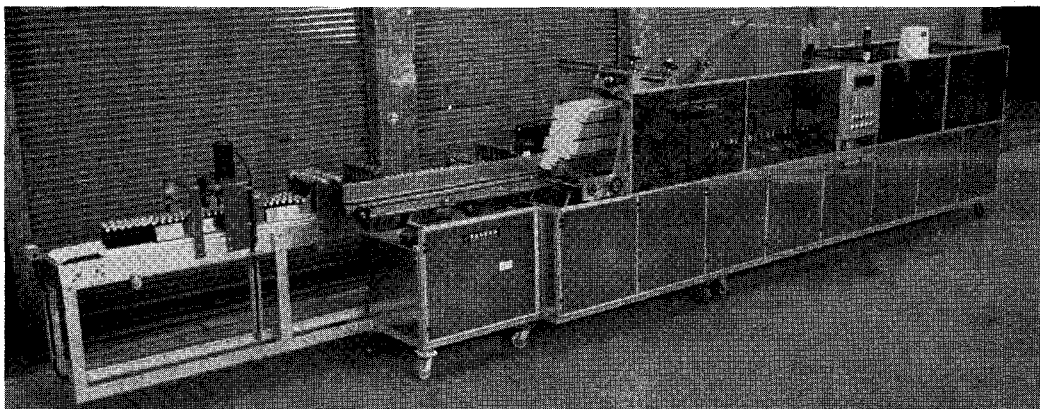
발생률이 거의 없으며, 특히 외국제품에 비해 호환성이 뛰어나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특정제품 사용시 약간의 부품교환만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돼있어 국내실정에 맞는 기계로 알려졌다.

고속자동포장기는 병이나 캔이 충전되어 포장기로 진행되면 5줄로 정렬하여 2열씩 분배하고 그 사이에 간지를 삽입하여 카톤패드에 밀어놓고 양날개를 접어 풀칠하여 포장하는 기계이다.

동성은 이 기계가 병의 경우 40~46mm, 캔은 53~67mm까지 겸용이 가능하고 포장속도는 종래 분당 40~60박스의 범위를 2배로 늘린 60~1백20박스 포장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동성은 지난 1970년 설립돼 현재까지 포장기계만을 전문으로 생산해 온 외길 기업으로 각종 포장기계의 국산화에 앞장서 온 전문 업체로 그동안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속자동포장기를 개발하여 이번에 신기술마크를 획득한 것이다.

동성은 이번 신기술마크의 획득을 계기로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연간 수입대체 효과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대량생산 체제의 공장자동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 기대되고 정부투자기관인 조합, 공사 등에 우선 납품이 가능하게 됐다.



동성포장기계가 신기술마크를 획득한 고속자동포장기 CPW-3-120